

향후 미국의 컴퓨터 시장 전망

본 난은 1989년 1월 9일자 International Business Week誌에 실린 미국의 각 산업별 향후 전망중 컴퓨터산업에 대한 부분을 번역한 것임.

〈편집자 註〉

석유 가격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철강업체들은 잘 해나가기도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 자동차 공업의 이윤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다. 그러나 컴퓨터 산업은 그렇게 단순한 적이 없었다. 어떤 회사들이 도산되는 반면 새로운 회사들이 일어나고 있다. 범용컴퓨터(mainframes)가 침체되면 PC는 흥한다. 이런 현상은 과거 수년간 있었던 일의 되풀이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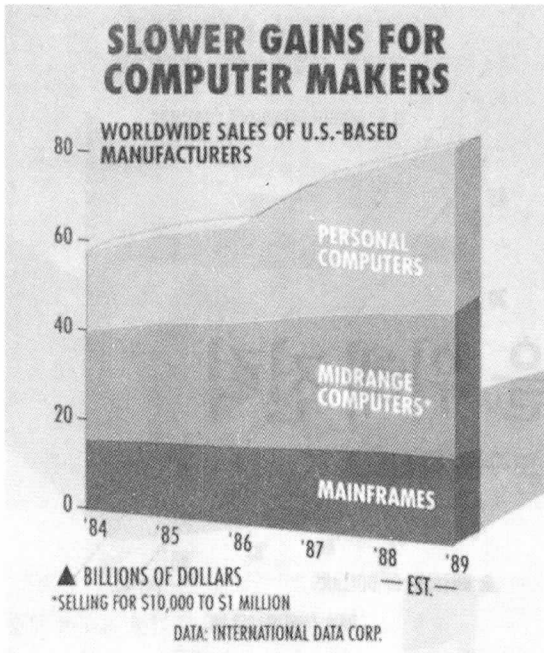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판매성장율이 약간 더디어질 것이라고 — 컴퓨터 산업이 성숙해 감에 따라 놀라운 일은 아니다 —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통상 네트워크에 장치되는 데스크탑(desktop)컴퓨터는 대형 컴퓨터의 대체물 — 특히 미니컴퓨터 — 로서 번창하기 시작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처럼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하다해도 전반적인 컴퓨터 산업을 건전하게 유지시킬 것이다.

예상되는 경기 침체는 어쩔수 없이 가장 활기있는 부분인 PC의 성장에 완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미 설치된 6,600만대의 기계와 해마다 팔린 1,600만대의 기계와 더불어 PC 사업은 계속 큰 비율로 성장하기에는 너무 비대

해 졌다. Compaq Computer Corp의 사장인 Canion씨는 “우리는 아직 포화점에 가까이 가지 않은 상태로 5년은 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조사업체인 international Data Corp. (IDC)은 PC 판매가 매년 20~30%씩 확장되었으나 1989년에는 단지 13% 성장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로는 PC가 컴퓨터 산업의 사업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은 결국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IDC는 미국의 컴퓨터 제조업체의 전세계에 걸친 장비판매는 1989년에는 작년의 9%, 1987년의 11%성장보다 적은 단지 7%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숫자는 많은 업체들로 하여금 대망을 품도록 하는 주요한 추세 — Sanford C. Bernstein & Co.의 분석가인 Stahlman씨가 PC의 새로운 스타일로의 “극적인 전이”라고 까지 부르는 것 — 를 못보게 하는 경향이 있다. 선두의 IBM과 Intel 80386마이크로칩을 이용한 Compaq사의 기계 뿐만아니라 Apple사의 Macintosh II는 데스크탑 시장에서의 그들의 몫을 급격



히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한 컴퓨터로 부터 얻게되는 소득은 1989년에 125%로 늘어날 것이라고 Stahlman씨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 주로 IBM의 구형 PC나 p.c./AT와 같은 보다 덜 정교한 PC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stahlman씨는 말하고 있다. 그는 또한 그러한 기종의 선적은 금년 2% 정도 늘어날 것이나 판매수익은 공급업자들의 가격인하 때문에 8%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비록 PC생산을 중단하는 제조업체들이 시장의 보다 정교한 부분을 침투하려고 계속 노력하겠지만 그들은 상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기계를 판매하게 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최근 Clustrix Corp의 사장이 된 Torresi씨는 Apple사와 Compaq사 및 IBM사는 유통경로를 너무 포화시켰다고 말한다.

보다 효율있는 PC로의 전환은 보다 큰 기계에 대한 수요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Sun Microsystems Inc와 Digital Equipment Ccorp와 같은 회사의 워크스테이션 (다기능사무기기)뿐만아니라 새로운 PC가 1990년대에 데스크탑시장을 지배하리라 예견된다. 일단 필요한 SW가 활용되게 되면, 그러한 기계의 네트워크이 현재 미니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취급되는 작업의 대부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작년에 미니컴퓨터 판매성장율을 4%로 둔화시키고 미니컴퓨터 제조업체들의 이윤과 재고가 하락 시키는데 일조를 했으며 또한 컴퓨터 산업계의 정리——Prime Computer

Inc를 인수하려는 MAI/Basic Four Inc의 작금의 노력과 같은 그러한 적의 있는 인수시도도 포함하여——를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IDC는 금년 미니컴퓨터의 판매성장이 6%로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대부분의 공급업자들에게 좋은 기회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호조의 많은 부분이 중간규모의 컴퓨터 시장에서의 IBM의 부활과 관련이 있게 될 것이다. IBM은 작년 8월에 선적을 시작한 새로운 미니컴퓨터 AS/400S를 25,000대 판매했다고 최근 말했다. 이 판매량의 많은 부분이 오래된 IBM기계를 대체하는 것이나 30%는 새로운 고객——그만큼 타 공급업체가 희생 되었음——에게 판매된 것이다.

많은 분석가들에게 Big Blue는 금년에 다시 회복될 좋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IDC는 범용컴퓨터 시장은 활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IBM의 대형컴퓨터의 수요는 강할 것이라는 얼마간의 징후도 있다. 작년 11월 선거이전에 법인체인 컴퓨터 구매자들은 1989년에 경제가 어떻게 될지 걱정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많은 구매자들이 범용컴퓨터 구매를 확대할 계획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선거후 시장조사 업체인 Sierra Group의 조사에 의하면 그들의 생각에 변화가 있었다. 여론조사에 응한 회사중 약 43%가 올해에 범용컴퓨터 구매를 늘일 의도이며 그것은 선거전 25%에 비해 늘어난 숫자이다.

경제에 대한 자신감도 늘어난 이유의 일부이나 다른 요인은 현세대의 범용컴퓨터 수명을 연장시키는 새로운 IBM S/W이다. First Boston Corp의 분석가인 Milunovich씨는 IBM은 이로 인하여 승리자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IBM의 1989년 소득이 계획된 주당 \$9.80보다 많은 \$11.25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1989년은 컴퓨터 산업의 분수령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업체들은 컴퓨터 구매를 보다 천천히 증가시키는 반면, 사무직원들의 정보교환이나 회사의 범용컴퓨터로 부터 정보의 추출등을 훨씬 간단하게 하여 줄 네트워크와 S/W및 통신시스템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NCR Corp의 회장인 Exley씨는 1989년에는 “우리가 수년간 이야기되어온 일들을 수행할 능력을 분출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견하고 있다.

그것은 컴퓨터로부터 보다 많은 것을 얻기를 갈망해 온 고객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나 기술적인 이해나 보다 복잡한 설비를 판매할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컴퓨터 제조업체들에게는 좋지 못한 소식이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 산업중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의 성장이 너무 느려 많은업체들이 도산을 모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